본원-UN Women-ADB 공동주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참가 및 아태지역 내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을 위한 태국 출장

출장 복명서

(2016. 11. 14. (월) ~ 11. 18. (금))

2016.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본원-UN Women-ADB 공동주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참가 및 아태지역 내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을 위한 태국 출장 보고서

출장 개요

출장 배경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본원)은 UN Women 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고, 특히 2014년 부터는 본원 ODA 연구사업(「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UN Women과의 협력연구를 진행해 왔음.
- □ 2016년에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하에서 양성평등 목표(SDG 5)의 달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안)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를 2개년에 걸쳐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위 연구는 총 12만불 규모의 국제연구로써, 아태지역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본원의 국제적 기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임.
- □ 동 협력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Women아태지역사무소와 본원이 태국 방콕에서「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 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이하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동 개최하였음.
- □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는」아태지역 여성유관부처 젠더 전문가 85인을 초청,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하에서 양성평등 목표(SDG 5)의 달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을 목표로 한 자문회의임.
- □ 또한 UN Women과 학술교류협력협약체결(MOU) 및 UN Women 여성폭력철폐팀과 업무 간 담회 개최, 방콕소재 타 국제기구 및 미얀마 사회복지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출장을 실시 함.

2 출장 목적

□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의「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공동개최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본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 UN Women과의 학술교류협력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
- □ 본원의 연구역량 국제화에 기여 아태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와의 고위급 정책 간담회를 통한 향후 협력방안 모색
- □ 아태지역 정부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의 협력 네트워킹

3 출장 개요

□ 출장지: 태국 방콕시

□ 출장자: 총 3인

(본원 3인)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부연구위원), 천숙연 연구원

□ 출장기간: 2016. 11. 14.(월) ~ 2016. 11. 18.(금) [3박 5일]

일자	세부내용	장소		
11/14 (월)	- 수상사 시원 순구())면서 원상			
11/15 (화)	O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회의 참석 O UN Women과의 학술교류협력협약 체결식 개최 O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참석자 만찬 참석	바		
11/16 (수)				
11/17 (목)				
11/18 (금)	11/18 (금) 이 인천도착 (06:30) 인천			

본원-UN Women-ADB 공동주최 「SDG 기초선 연구 자문 회의」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5 (화)~11.17 (목) / 태국 방콕 Landmark 호텔
- □ 참가자

Ш

- O 한국 참가자: 총 3인 (원내)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 O 국제기구 및 아태지역 참가자: 총 85인
- □ 세부프로그램 및 회의내용 정리

○ 1일차 회의: 11월 15일 (화)

시간	주제		
8:00~8:30	참가자 등록		
8:30~9:00	개회식•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사무소 부소장 개회사• Sonomi Tanaka 아시아 개발은행 양성평등 자문관 축사• 이명선 본원 원장 축사		
9:00~9:15	지역회의 개최 목적과 기대결과 Ryce Chanchai UN Women 프로그램 전문관		
9:15~10:30	세션 1 지속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개발의제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사회: Janneke van der Graaff-Kukler, UN Women 기획전략 전문관• 젠더 관점으로 본 SDG 모니터링: 기회와 한계점 Ryce Chanchai, UN Women 프로그램 전문관• SDG 기초선 연구 개념의 틀 소개 Laurence Levaque, ADB 사회개발전문관• 본회 토론 (35분)		
10:30~11:00	휴식 (그룹사진 촬영)		
11:00~12:30	세션 2 아태지역에서 양성평등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현황 사회: Jo-Anne Bishop • 지역개요 및 데이터와 추세 분석 • 이후 4개 지역별 소그룹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으로 나누어서 발표 (40분) • 토론 (30분)		
12:30~13:30	오찬		
13:30~15:00	UM A 3. 여성과 소녀의 안전 발표자: Melissa Alvarado, UN Women 여성폭력철폐 전문관 토론자: Imranan Jalal, ADB 선임 사회개발 전문관 4개 지역 지역별 소그룹토론		
15:00~15:15	휴식		
15:15~17:00	세션 4. 성과 생식건강 및 권리 접근성의 보편화사회: Imranan Jalal, ADB 선임 사회개발 전문관• UNFPA의 발표• 그룹 토론 (45분)• 전체토론 (30분)		
18:30~	만찬		

○ 이명선 원장의 개회식 축사

-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젠더관련 지표를 만들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SDG 기초선 연구의 중간 자문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UN Women,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공동으로 개최함.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양성평등 강화와 여성 의 역량강화 확대를 목표로 2개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협력연구의 일환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람.

○ 세션 1: 지속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개발의제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 SDGs는 MDGs에 비해 수평적, 통합적이며 2015년을 기점으로 각 국가의 개발계획에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틀이 될 것임. 특히 SDG5의 목표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차별, 폭력의 철폐와 역량강화 및 사회경제참여의 동등한 권리, 의료에 대한 보장과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이 5번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함께 연결함으로서 그 목표치에 체계

적으로 다가가야 하며 젠더와 관련된 지표들로 측정할 수 있음.

- 2030년까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달성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DB와 UN Women이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기초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이고 젠더관련 성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며,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석파트와 통계파트로 나뉘어 있음.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며, 유소년의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 연구의 효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세션 2: 아태지역에서 양성평등과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현황

- 가용데이터는 젠더개발지수, 젠더불평등지수, 인간개발지수등이 존재하지만, 데이터의 존재가 데이터의 부재보다 항상 낫다고 할 수는 없음. 현실적으로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임. 젠더개발지수를 보면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뤘음. 반면 젠더불평등지수는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남녀간의 불평등 지수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감소와 함께 다시 상승하는 면을 볼 수 있음. 예로 방글라데시와 키르기스스탄은 가장 큰 젠더간 불평등을 보이지만, 이란, 몽골, 파퓨아뉴기니, 필리핀과 통가는 감소와 확대의 시기를 거쳤음. 2000년 이후 키르기스스탄과 통가는 중국, 몰디브, 네팔과 함께 양성불평등이 가장 크게감소한 5국가임. 특히 자료들을 분석할 때, 차별적인 사회구조, 특히 가족과 정보의 제한 등이 젠더불평등을 일으키는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하지만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어떤 분석이더 필요한지가 현재의 과제이며, 각국가 특성을 고려하여 젠더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공유해야함.

○ 세션 3: 여성과 소녀의 안전

- 여전히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으며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침. 특히 이 수치에 대 해 경제적 환산을 해보았을 때, 베트남의 경우 2010년 GDP 기준 1.4%정도가 폭력에 대한 비용으로 집계되었음. 여성에 대한 폭력에 있어서 데이터의 필요성을 분석해볼 때, 여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며, 폭력근절을 위한 영향과 책임에 대해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적, 지역 적, 국제적 협약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됨.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어야만,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음.

○ 세션 4: 성과 생식건강 및 권리 접근성의 보편화

- 아시아지역의 젊은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임신은 줄어들 수 있는 추세임. 어린 청소년의 임신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의 계획여부, 출산의 계획 여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며, 때문에 이는 국가유소년통계를 통해 수치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데이터에서 보면 아시아는 결혼 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혼도 여아의 보건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피임에 대한 의견충돌이 많고 이에 따라 안전하지 못한 낙태도 시행되고 있음(360만 건 예측). 현재, 미혼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며 연령대를 세분화하여(15-19세, 20-24세) 분석할 필요가 있고. 계획된 임신과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2030까지 산모사망률을 10만 명당 70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산모사망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숙련된 산파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가임여성의 비율과 1000명 당 여자 청소년 출산율을 그룹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함. 더 나아가, 통계에 대한 관리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관리에 대한 주체를 정하고, 국가, 지역단위로 분석하며 지표 자료로서 더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려해야 함.

○ 2일차 회의: 11월 16일 (수)

시간	주제		
8:45~9:00	1일차 회의내용 리뷰		
9:00~10:30	세션 5. 여성의 경제참여사회: Jo-Anne Bishop• 양질의 일자리 및 사회보험 (15분)• 무보수 돌봄 노동 (15분)Dr. Indira Hirway, 경제학 교수,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여성의 재산소유권과 생산자원 접근 (15분)• 종합 토론		
10:30~10:45	휴식		
10:45~11:45	주제별 그룹 토론		
11:45~12:30	종합토론		
12:30~13:30	오찬		
13:30~14:30	세션 6. 목소리, 참여와 리더쉽사회: Jo-Anne Bishop• 2030 개발의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여성의 목소리를 아태지역에 확대시 키는 방안 Hanny Cueva-Betata, UN Women 안전 및 거버넌스 자문관 (15분)• 지속가능개발목표 지표설정에 대한 최근 진행사항• 종합토론		
14:30~15:30	세션 7. 성인지적 재해위기관리와 기후변화사회: Jo-Anne Bishop• 기후변화와 재해위기관리에서의 양성평등 발표자: Sonomi Tanaka, 아시아 개발은행 양성평등 자문관• 전체토론 (30분)		
15:30~15:45	휴식		
15:45~17:30	세션 8.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가용성 및 성별분석데이터 Tole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관련된 젠더 지표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현재 데이터 존재 및 통계상의 부족한 정보에 대한 발표 Jose Ramon Albert, 선임 연구위원, Philippines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Jose Ramon Albert, 선임 연구위원, Philippines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Tole 전체토론 (45분)		

○ 세션 5: 여성의 경제참여

- 여성의 무임금 노동과 역량강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계열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하며 왜 양성평등과 경제적 역량강화에 무급노동이 장애가 되는지 이해해야 함. 무임금 노동은 여성의 경우에 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인권에 대한 폭력으로 발전할수 있음. 아태지역에서 이러한 국가통계가 부재한 이유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과, 낮은 문해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함. 특히, 데이터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빈곤한 여성, 농촌지역의 여성, 건강하지 않은 여성들이 소외될 수 있음.
- 여성의 농업에 대한 기여(79%)가 큰 반면 여성이 농경지를 소유하는 비율(2%-30%)은 매우 낮은 실정임. 토지소유에 대한 지표는 여성의 상황에 대해 보여주고, 더 나아가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자체적으로 법적평가도구가 존재하며 이-러닝 자료와 국가별 워크샵도 지원할 예정임.
- 그룹토의에서는 정책적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 남녀 급여차이, 사회보호시스템, 여성의 무보수 노동, 여성의 자본에 대한 권리에 대해 각 국가별로 토론하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현존하는 데이터로 정책을 수립하기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 였음.

○ 세션 6: 목소리. 참여와 리더쉽

- 폭력에 대한 해방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해 여성의 발언권을 높이고 정치 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이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의석수,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표로 평가하며 발언권에 대한 평가는 납치, 살인, 기자에 대한 고문 등 인권 옹호에 대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성별분석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그밖에도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지표, 각 사회분야에 진출해 있는 여성비율에 대한 지표들이 존재함.
- 여성의 정치참여와 발언권확대를 위해 문화와 국가의 맥락에 대한 병렬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 문화적 규범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기 때문임. 가부장재가 문화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를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섹터의 불평등 요소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여성의 문제를 제한하는 공론의 장을 이룰 필요가 있음.

○ 세션 7: 성인지적 재해위기관리와 기후변화

- 아태지역에서 기후변화가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여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후변화와 재해위기관리에서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젠더를 기반으로 한 위기관리능력과 SDG 지표관련성을 고려한 맥락에서 어떤 도전과제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의 장애요소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못한 특정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 세션 8: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가용성 및 성별분석데이터

- 이번 SDG 기초선 연구를 진행한 Zero Poverty Solution의 발표로 데이터 연결 및 수집에 대한 개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차이에 대한 분석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음. SDG의 젠더관련 지표들을 대상으로 UN및 관련 통계 기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족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함. 결과적으로 데이터 차이가 많이 존재하며 57개 국가중 14 국가만 지표를 제공하였으며, HR제약, 비용제약 등 다른 어려움을 호소함. 정책이 젠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지표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국가의 참여자는 데이터 수집 및 필요성을 인지하여 성별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일차 회의: 11월17일(목)

시간	주제		
8:45~9:00	2일차 회의내용 리뷰		
9:00~10:30	### ### ### ### ### ### ### ### ### ##		
10:30~10:45	휴식		
10:45~12:30	제 2차 아시아 카페 그룹 토론 종합토론		
12:30~13:30	오찬		
13:30~15:30	세션 10. 지속가능개발목표 하에서의 양성평등 모니터링-조정 및 지원 사회: Jo-Anne Bishop • Trigger Presentation UN Women		

	● 종합토론			
	다음 3분야에서 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분야 모색			
-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인지적인 현지화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으로 조율된 정책 수립 환경 조성			
- 정성적이고 비교가능하며, 정기적이고, 접근 가능한 젠더 통계를 통해 국				
	정보 부족문제를 없애고 정책 의무이행을 이끌어 냄			
- 데이터 접근성을 증진시켜 이를 통한 연구, 정책, 프로그램 및 관련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			
	● 종합토론			
15:30~15:45	휴식			
15.45~17.00	세션 11. 아태지역 국가내 젠더와 통계 역량 강화			
15:45~17:00	• 아태지역국가에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중요 권고사항 발표			
17:00~17:30	폐회식			

○ 세션 9: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달성을 위한 최우선적 정책

- 필리핀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에 접목하여 각 부처 및 다양한 기관들과함께 기관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고자함. SDG 실행 로드맵을 설립하여 기관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리적 특성 및 성별, 연령별, 인종별 지표를 만들어서 지역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기구와 여타 다른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 방글라데시는 국가개발계획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맞추어 빈곤퇴치를 근간으로 사회발전과 경제성 장 및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세음. 또한 양성평등을 포함한 14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견고하고 엄격한 7차 5개년 국가계획을 달성하고자 함. 더 나아가 NGO 및 UNRC와 협업하여 SDG 를 위한 지표와 통계를 구축할 계획임.
- 네팔은 적절한 비용의 측정과 자원할당을 지원하고, 젠더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젠더부응예산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이는 연구, 분석, 자금부족 인지를 통해 트래킹 메카니즘을 만들어 투명성, 책임성에 대해 평가함. 그러나 이 또한 젠더관련 통계 생산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계자들의 지식도 한 정된 상태임.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할당과정을 강화하며, 다양 한 사례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바누아투는 국가양성평등과 여성개발정책을 2015-2019년을 목표로 시행하여 폭력근절, 경제역량 강화, 정치참여, 성주류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예산부족과 남성주도의 사회분위기, 정보와 인지역량 미비가 장애물로 작용하지만, 가족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젠더우선정책 및 정부체계안 에서 젠더포함 등 성과도 있음.

○ 세션 10: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의 양성평등과 모니터링과 조정 및 지원

- SDG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젠더통계가 필요하며 이는 수요와 공급측면이 반영되어야 하며, 중간매 개로 분석과 사용이 포함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leave no one behind'를 중심으로 국가의 법적, 정 책적 프레임워크에 집중하여 수요에 대한 분석적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공급측면에서 통계의 기준을 정하여 데이터 생산 과정을 체계화하여 연결하고 효율성을 위해 각각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가별, 기관별,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함.
- 비흡한 정책 방향, 국가통계시스템상의 기술 부재, 데이터양의 부족 등이 복합적인 젠더지표 확충의 필요성으로 지목됨. 향후 효과적인 평가와 젠더대응 지방화를 위한 정책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가 지표의 차이를 반영하여 SDG 실행을 위한 양질의 젠더지표가 존재하는지, 믿을만하고 상용화 할 수 있는 지표인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Ш

UN Women과의 학술교류협력협약 (MOU) 체결식

□ 일시 및 장소: 2016. 11. 15.(화), 12:30 ~ 13:30 / 랜드마크 호텔 10층 Sui Sian 중식당

□ 참가자

O 본원: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총 3인)

O UN Women: (총 8인)

1	Anna-Karin Jatfors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부소장
2	Melissa Alvarado	여성폭력철폐사업담당관
3	Ornwipa Rugkhla	여성폭력철폐사업 캠페인 담당관
4	Sojung Song	여성폭력철폐사업 사무관
5	Ruangkhao Ryce Chanchai	프로그램 전문관
6	Smriti Aryal	아태지역 HIV 전문관
7	Francisco Cos-Montiel	여성 경제역량강화 정책담당관
8	Montira Narkvichien	공보담당관

□ 주요내용

O 협력기간: 2016년 11월 15일~2021. 11. 15 (매 5년마다 갱신)

O 주요 협력내용

- 4개 분야 (정책 및 법령에서의 성주류화, 성기반폭력,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여성의 리더쉽)에 대한 협력관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기로 합의함.
 - 협력연구, 출판, 학술행사 공동개최, 학자 및 연구자 교류
 - 양 기관 공통관심 분야의 정보 교환 및 해당 분야의 직원 및 연구자 간 교류
 - 본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써 국내 유관부처와 UN Women 간의 협력 도모 및 지원





UN Women 주최 특별만찬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5 (화) 18:00~20:00/ 방콕 랜드마크 호텔
- □ 참석자

IV

- O 본원 참석자:
- O (원외)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참석자 전원
- O 내용: UN Women 측 주최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참가자를 대상으로 특별 만찬 개최
- □ 주요논의내용
 - O 「SDG 기초선 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의 2017년 국내 개최에 대한 가능성 타진

본원-UNFPA 고위급 정책 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6.(수), 10:00 ~ 11:30 / 방콕 UNFPA 아태지역사무소
- □ 참석자
 - O 본원 참석자: 총 3인(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 O UNFPA 참석자: 총 2인
 - Yoriko Yasukawa UNFPA 아태지역사무소장
 - Ingrid FitzGerald, UNFPA 젠더와 인권 담당관

□ 회의내용

○ 본원소개

- 본원의 역사, 조직, 연구 주제, 국제협력 및 ODA 사업에 대한 전체적 개괄
- 한국의 여성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써 본원은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UNFPA의 중점 사업분야와도 일치함.

O UNFPA 소개

- UNFPA는 양성평등을 독립된 이슈로 다루고 있고, 성폭력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혼, 남아선호 등 여성에게 유해한 사회적 관습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있음.

- 청소년과 소녀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과 소녀 관련하여 UNFPA는 소녀들의 포괄적 교육접근성 확대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 이며, UNFPA가 아태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소녀 우호적 (girl-friendly)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소녀들의 역량강화 및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내 국가들이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UNICEF와 공동으로 경제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아태지역의 인구조사 및 고령화 관련 사업 소개

- 인구역학 (population dynamics) 관련, 아태지역 국가들이 인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일례로 미얀마는 2014년, 북한은 2018년 인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기술지원 중임. 또한 아태지역 내 인구조사를 SDGs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분석하고 있으며, 성·모자보건을 포함한 아태 지역 보건에 대한 정의 및 증거 수집을 돕고, 성별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진행 중임.
- 인구 고령화 관련 현재 UNFPA는 한-중-일-태국 보건복지부와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저출산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보호에 힘을 쓰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용시장에서 가족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간구하는 중임.
- 젠더와 고령화 관련하여 UNFPA는 두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첫째는 고령화 문제이고 둘째는 여성, 특히 중년여성의 무보수 돌봄임. 무보수 돌봄의 남녀평등한 참여가 중요한데, 현존하는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무보수 돌봄 참여가 여성의 경제참여를 돕는다고 함.

- 아태지역 내 성기반폭력에 대한 사업소개

- 2017년 UNFPA는 아태지역 내 폭력상황을 총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 발간을 계획 중임. 우선 호주정부의 지원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또는 인구통계학 조사에 기반한 성기반 폭력을 포함한 폭력 유발율을 조사 중임. 또한 이의 일환으로 UNDP, UN Volunteer, UN Women과 함께 인도적 지원에서의 성폭력과 예방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지속개발목표 (SDGs) 목표 5.3번 유해한 관습철폐의 일환으로 네팔, 아프가니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할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의 여아의 51%가 할례를 경험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여성할례가 진행되고 있음.





VI

본원-아시아개발은행 (ADB)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6.(수), 18:00~20:00 / 방콕 Landmark 호텔, Ching Cha Chalee □ 참석자
 - O 참가자: 총 4인
 - (원내)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 (ADB) Sonomi Tanaka 아시아 개발은행 양성평등 자문관

□ 회의 내용

○ 본원 소개

- 본원의 역사, 조직, 연구 주제, 국제협력 및 ODA 사업에 대한 전체적 개괄
- ADB 산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DBI)와 다음주 11.23 (수)~11.244(목) 양일간 '양성평등과 아시 아 여성인력의 경쟁력을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교육워크숍에 대한 소개.

O ADB 소개

- ADB 양성평등팀은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부 산하에 위치해 있고, 총 9명의 팀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젠더와 개발, 도시개발 및 사회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Sonomi Tanaka 는 양성평등팀의 수장임.
- ADB의 중점 사업 분야는 지속가능개발프레임워크에서의 젠더, 아태지역 여성의 경제역량참여와 젠더와 기후변화임.





VII

본원-미얀마 사회복지부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7.(목), 08:00~09:00 / 방콕 Landmark Hotel
- □ 참석자: (총 4인)
 - O 본원: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 O 미얀마 사회복지부: 노타와 (Naw Tha Wah) 여성개발국장
- □ 회의내용

○ 본원 소개

- 본원의 역사, 조직, 연구 주제, 국제협력 및 ODA 사업에 대한 전체적 개괄
- 본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매년 주최하는 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여성정책 컨설팅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에 참가했던 노타와 국장은 동「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에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함.

○ 미얀마 사회복지부 소개

- 미얀마 사회복지부는 사회복지국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SW)과 구호재정착국 (Department of Relief and Resettlement, DRR)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국 내의 8개 부서 중 하나인 재활(Rehabilitation)의 여성개발국에서 여성직업학교, 여성개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국은 2010년부터 양성평등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2013년 10월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 (National Strategy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SPAW)을 수립하였고 구체적 실행에 착수하였음.





VIII

본원-유엔 이시아·태평양 경제시회위원회 (UNESCAP) 고위급정책긴담회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7.(목), 11:00~12:30 / 방콕 UNESCAP 사무소
- □ 참석자: (총 5인)
 - O 본원 참가자: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 O UNESCAP 참석자: 총 2인 (Kaveh Zahedi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부사무총장, Sayuri Cocco Okad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부 젠더전문관)
- □ 회의내용

ㅇ 본원소개

- 본원의 역사, 조직, 연구 주제, 국제협력 및 ODA 사업에 대한 전체적 개괄.
- KWDI-UNESCAP의 협력 역사에 대해 소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향후 ODA 사업 주요 분야로써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LG)에 관한 논의.

O UNESCAP 소개

- UNESCAP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하 SDGs)의 달성을 위하여 UNESCAP산하 8개 팀의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SDGs 목표와 일치시킴. 젠더는 8개 팀 중 하나인 사회개발 (social development)산하 소속임. 여성과 관련하여 UNESCAP이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 임. 하나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일환으로 WIFI를 통한 여성의 IT역량 강화이고 크로스커팅 주제로 여성의 리더쉽에 대한 워크숍을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와 공동주최하고 있음.
- 2주 후 ESCAP이 개최하는 지속가능개발위크 (SDG Week) 에서는 SDGs와 올해 초 개최된 유엔여 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를 검토하는 내용을 주제로 할 예정임.





IX

본원-UN Women 여성폭력철폐팀과의 업무 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2016. 11. 17 (목) 18:00~19:30. 방콕 Landmark 호텔
- □ 참석자 (총 6인)
 - O (본원) 이명선 원장,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천숙연 연구원
 - O (UN Women) Melissa Alvarado 여성폭력철폐사업담당관,
 Ornwipa Rugkhla 여성폭력철폐사업 캠페인 담당관
 Sojung Song 여성폭력철폐사업 사무관

□ 회의내용

○ 본원 소개

- 본원의 여성폭력과 여성인권관련 연구 및 사업 소개.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및 본원의 활동 소개

O UN Women의 안전도시 사업소개

- UN Women이 추진하는 안전도시 사업에서의 KWDI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지난 9월에 서울에서 본원이 주최한 안전도시 보고서 발간회 이후, 동티모르 딜리, 베트남 호치민과 다낭, 파키스탄, 네팔 내 도시들을 포함한 아태지역 내 새로운 도시들의 안전도시 참여가 확대되었고 아세안 (ASEAN)의 경제통합에서도 안전도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안전도시 설립 시 기존의 여성을 보호하는 접근을 탈피하여, 혁신적 변화를 부르는 방안을 고민 중임. 이를 위해서는 사회규범 속 성 편견을 없애고, 안전도시 건설에 도시계획과 정부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X

본원-UN Women-ADB 공동주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참가 및 아태지역 내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을 위한 태국 출장의 의의

ㅁ 본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O 본원은 아태지역 총 23 개국 85명의 젠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SDG 기초선연구 지역자문회의」를 ADB와 UN Women과 나란히 공동주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본원의 가시성과 위상을 제고함.
- O UN Women과 ADB도 동 회의에 대한 본원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O 본원의 UN Women과의 협력연구인 "SDGs 기초선 연구"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타 대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본원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아태지역을 넘어선 국제 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음.

□ UN Women과의 MOU 체결 및 협력관계 공고화

- O UN Women과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정례적인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함.
- O 특히 출장 기간 동안 기회가 닿는 대로 UN Women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협업 아젠다들을 도출할 수 있었음.
- O 또한 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는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으며, 양 기관에 대한 상호이 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음. 이는 향후 협력 업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됨.

ロ 방콕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신규 사업 개발

- O UNESCAP은 1990년대부터 본원과 구축된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 방문을 계기로 이를 활성화하길 원함.
- O UNFPA, UNESCAP 등 젠더관련 주요 국제기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하여 본원의 연구와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을 도출함. 특히 이 기관들은 한국에 여성과 젠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본원의 활발한 국내외 연구와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음.
- O 「SDG 기초선연구 지역자문회의」의 공동주최자인 ADB 측에서는 마닐라 본부의 젠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Sonomi Tanaka가 참석함. Sonomi와는 지난 2014년의 아시아여성리더십회의(Asia Women Leadership Progrma)를 공동 주최한 바 있으며, 당시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소회를 나누고, 2017년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발굴하였음.

ロ 국제동향 파악 및 선도적 연구의제 개발

- O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국제기구들이 젠더와 기후변화(환경)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음. 이러한 국제적 트렌드에 부응하여 개발 협력에서의 젠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이를 현장 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O 현재 아태지역일부 국가들은 SDGs를 국가발전 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지표설정 작업에 이미 돌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SDGs 젠더 관련 목표의 국내 이행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KOICA 등 국내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됨.

□ 본원 ODA 사업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O 본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ODA 사업인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이하 아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여성관련 공무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음. 이번에 개최된 SDGs 기초선 자문회의에도 아태사업의 미얀마 카운터 파트인 노타와 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본 회의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 개발의 시간을 가짐. 별첨 l

본원-UN Women-ADB 공동주최 「SDG 기초선 자문회의」UN Women 웹사이트와 트위터 (Twitter) 게재

UN Women 아태사무소가 11월 15일 태국 Landmark 호텔에서 본원-UN Women-ADB가 공동주최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UN Women 트위터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음.











English | 한국어



별첨 ||

UN Women 트위터에 본원과의 MOU 체결식 보도자료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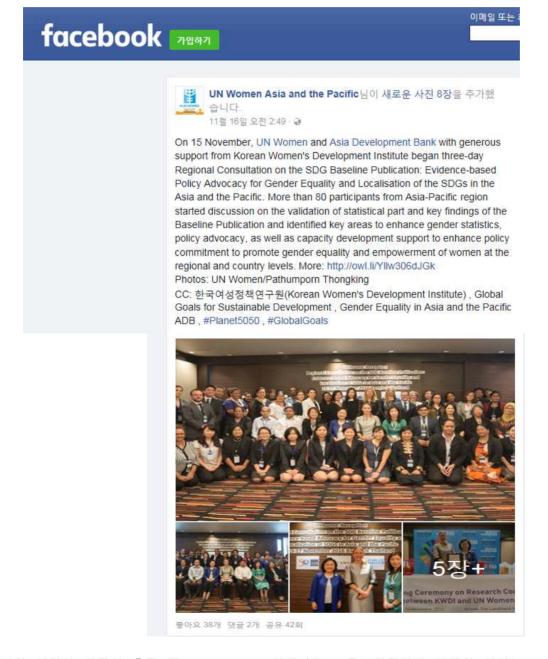
□ 본원 MOU 기관인 UN Women 아태사무소가 11월 15일 태국 Landmark 호텔에서 개최한 학술 교류협력협약체결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UN Women 트위터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음.



별첨 Ⅲ

본원-UN Women-ADB 공동주최 「SDG 기초선 자문회의」UN Women 페이스북 (Facebook)에 게재

UN Women 아태사무소는 11월 15일 태국 Landmark 호텔에서 본원-UN Women-ADB가 공동주최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및 본원-UN Women이 체결한 학술교류협력협약체 결식 (MOU)에 관한 보도자료를 UN Women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음.



※ 본원 이명선 원장이 출장 중 UN Women 아태사무소 공보담당관과 진행한 인터뷰는 12월 초에 UN Women 아태사무소 웹사이트에 실릴 예정임.